

문화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 지역 작가 대거 참가

시·도 문화재단 현황

|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제주 | 광주 | 부산 | 대구 | 전남 | 대전 | 충북 | 경남 |
|---------------|-------------|------------|--------------|--------------|--------------|-------------|-------------|-------------|-------------|-------------|------------|--------------|
| 출발일 | 2004. 3. 15 | 1997. 7. 3 | 2004. 11. 26 | 1999. 12. 28 | 2000. 10. 31 | 2004. 12. 1 | 2009. 1. 21 | 2009. 4. 16 | 2009. 5. 29 | 2009. 10월예정 | 2010년 7월예정 | 2010년 1월예정 |
| 최초출연금 | 500억 | 335억 | 395억 | 60억 | 45억 | 45억 | 1135천원 | 194억 | 113억 | 90억 | 150억 | 105억 |
| 기금조성 목표액 | 3,000억 | 1,000억 | 1,000억 | 200억 | 300억 | 100억 | 500억 | 500억 | 200억 | 500억 | 200억 | 300억 (2018년) |
| 기금규모 (2008년말) | 1,126억 | 1,030억 | 482억 | 176억 | 127억 | 49억 | 120억 | 44억 | 110억 | 87억 | 132억 | 88억 |
| 현기인원 | 60명 | 189명 | 63명 | 45명 | 13명 | 6명 | 6명 | 15명 | 2명 | 10명 | - | 10명 |
| 2008 예산액 | 283억 | 592억 | 101억 | 105억 7천만원 | 46억 | 25억 | - | - | - | - | - | - |
| 2009 예산액 | 375억 | 915억 | 150억 | 126억5천 3백만원 | 46억 | 54억 | 47억4천 만원 | 22억 | 3억 | - | - | 3억 |

문화예술위 기금 49억 ‘전국 최하위’
광주, 부끄러운 ‘문화수도’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재단)의 기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은 문화재단 출범 후 기금이 대폭 늘어난 데 비해 광주는 출범 당시와 비교, 증가액이 미미해 문화발전을 위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매칭 비율에 따라 인센

기금은 127억원과 194억원에 이른다. 또 최근 출범한 부산과 전남문화재단은 각각 114억원과 110억원 수준이다. 그밖에 서울과 경기문화재단은 1천126억원과 1천 300억원이며 인천은 482억원에 이른다. 대전문화재단은 90억원, 충북과 경남문화재단은 132억원과 88억원이다. ▲시 출연금 아예 없어 =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2004년 출범 당시 45억원이었던 기금이 5년 동안 고작 4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광주시의

하고 있으며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강원도도 해마다 일정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지난해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올해 예산 역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 장기적인 기금 출연과 함께 광주문진위도 자체 기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민간에서 대표이사를 맡는 등 이원화된 타 지역과 달리 광주문진위는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금 확충’에 적극 나서야하지만 문진위 출범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성과물도 없어 비판 여론이 높다. 오건택 문진위원장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확보를 위해 기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선 시민·직능단체들이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소액기부하는 방안부터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부산문화재단 하경희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 출연과 함께 무엇보다 제대로 된 운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문화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 출연금 전무·위원장 역할 중요
문화발전 체계적 지원 ‘확충’ 시급

티브 제도를 강화하기로 해 기금 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꼴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8일 현재 각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문화 재단은 광주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건택)를 비롯해 모두 9개이며 올 말까지 전 북과 대전이, 2010년에는 충북·경남문화재단이 출범한다. 9일 현재 광주문진위 기금은 49억원으로 9개 시도 문화재단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광주보다 훨씬 낮은 강원문화재단은 176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와 대구의

출연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타시도의 경우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에 꾸준히 기금을 출연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광주시의 기금 출연은 전무한 상태로 광주문진위의 기금 예산의 30%를 적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0년 45억원으로 출발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제주시가 해마다 20억원을 출연, 현재 기금은 120억원에 이른다. 또 부산문화재단 역시 2018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부산시가 매년 40억원을 출연한다. 인천의 경우 1천억원을 목표로 매년 60억씩 출연

하고 있으며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강원도도 해마다 일정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지난해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올해 예산 역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 장기적인 기금 출연과 함께 광주문진위도 자체 기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민간에서 대표이사를 맡는 등 이원화된 타 지역과 달리 광주문진위는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금 확충’에 적극 나서야하지만 문진위 출범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성과물도 없어 비판 여론이 높다. 오건택 문진위원장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확보를 위해 기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선 시민·직능단체들이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소액기부하는 방안부터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부산문화재단 하경희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 출연과 함께 무엇보다 제대로 된 운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문화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근호 작 '영웅 시리즈'

12~16일 예술의전당서

고근호·박선주씨 등 전시

지역작가들이 12~1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V갤러리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판화사진아트페어’(SIPA)에 참가한다.

올해로 15회째인 이 행사에는 고근호, 박선주, 정운학, 김영태, 조승기, 김강석, 이정록, 황지영, 김등용, 신양호씨 등 지역작가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 작가 350여명의 판화와 사진을 소개한다.

고근호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체 게바라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영웅 시리즈’를 선보이고, 정운학씨는 옷 형태의 조각품을 전시한다. 또 황씨는 미화 100달러 지폐를 풍자한 사진작품을 출품했고, 신양호씨는 폐품으로 만든 ‘생선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 아트페어 본 전시에는 구분창과 빌 비올라, 김아타, 박서보, 쿠사마 야요이, 백남준, 데이먼 허스트, 무리카미 다카시 등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한다.

또 네덜란드 사진작가 7명의 사진과 예술을 소개하는 ‘비주얼 인터렉션’과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원로 작가 윤주영(81)의 다큐멘터리 사진 37점을 모은 ‘윤주영 사진전’도 열린다.

유명 판화작가들이 판화로 만든 장서표(서적의 주인을 명시하기 위해 책에 붙이는 표)도 전시되며, 저렴한 가격에 직접 장서표를 만들어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아외에서는 일본 작가 후지와라 요지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린 손수건 수만 장을 연결해 아외 전시장을 뒤덮는 설치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미술대학 학생증을 갖고 있으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버지’ 공연은 계속된다

연극인 박윤모씨 102회째 ... 11일부터 공동예술극장

연극인 박윤모(57)씨는 지난 1998년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위하여’를 87회 공연했다.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11남매를 키워낸 주인공 김오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기도 했다. 광주·서울·중국 등지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박씨의 마음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았고 재공연을 꿈꿨었다. 설불리 업무가 나지 않아 몇차례 연승하다 못버려던 박씨는 꼭 10년만인 지난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연을 시작해 101회 공연을 마쳤다. 작품의 원작자인 한승원의 고

희와 등단 40년, 박씨의 올해의 배우상(한국연극협회 선정) 수상 등 경사가 겹쳐 더욱 의미있는 공연이었다. 박씨가 “100회 공연을 기점으로 기회가 닿으면 무대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오후 5시)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에서 장기간 공연을 갖는다. 한승원의 유일한 희곡작품인 ‘아버지’는 황주 김씨 문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종손 노릇을 하며 11남매를 키운 ‘아버지’ 김오연이 고회연에서 자신의 삶을 찬



찬히 돌아보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박씨는 주인공 김오연을 분해 가난한 형편에 관·검사가 되기를 바라며 다른 자식들에 미안함을 무릅쓰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평범한 길을 가고 만 이날을 일남에 대한 서운함,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등 사랑 사는 이야기를 완숙한 연기로 보여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나해 공연과 크게 달랐던 부분은 없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시사적인 내용을 가미했다. 장면 전환을 위해 사용했던 아코디언 연주는 전남대 국악과 김주희씨의 구음으로 대체했으며 박내달 삼순이 역으로 깜짝 출연하는 김현정이 가야금병창을 들려준다. 문의 062-222-7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타파넬 플루트 오케스트라 연주회

14일 광주문예회관
최지혜씨 등 협연

타파넬 플루트 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인 황성규(모나무르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씨가 이끄는 타파넬 플루트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주제의 ‘시인과 농부’ 서곡, 프랑스의 ‘헝가리엔 댄스 5번’, 요한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르메의 ‘마음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지휘 황성규 플루트 최지혜

또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으로 이화여대를 거쳐 인디어나주립대 음악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최지혜씨가 타파넬의 ‘마탄의 사수 환상곡’을 협연하며 박희경·최옥경·서정

민·장민영씨가 보네의 ‘카르멘 환상곡’, 모차르트의 ‘플루트협주곡 2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타파넬 플루트오케스트라 단원 이외에 지역의 초·중·고 플루트 20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지난 1997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파넬 플루트 오케스트라는 변성호·배해경·백영경씨 등 4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 | | | | |
|--|--|--|--|---|
|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메가박스 구.관전역국사거리 ☞예매1544-0600</p> <p>M관 이태원살인사건 (154) 최고급관 2관 국가대표 (124) 3관 해운대 (124) / 원편 마지막 집 (184) 4관 블랙 (전세) 5관 프로포즈 (154) 6관 처음 본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154) 7관 마이시스터즈키피어 (124) 8관 하이레인 (184) 9관 애자 (154)</p> <p>•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2시간 30분 초저가 정형외과 부과</p> | <p>영화사랑 영화사랑 *예매:www.joybc.com/1588-7941</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 뒷편)</p> <p>1관 마이시스터즈키피어 (124) 2관 드림업(124)/처음 본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154) 3관 프로포즈 (154) / 애자 (154) 4관 애자 (154) 5관 나인 (124) / 원편 마지막 집 (184) 6관 해운대 (124) 7관 지.아이.조 (154) / 국가대표 (124) 8관 하이레인 (184) 9관 이태원살인사건 (154) 10관 국가대표 (124)</p> <p>[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 1588-7941 상무점 영업시간: 11:00~21:00 (단, 영화 관람객 한정)</p> | <p>고대시영 고대시영 *www.hamcinema.co.kr/1588-9120</p> <p>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시프렉스 ☞ 267-7777</p> <p>1관 드림업(124)/오편-천사의비밀(184) 2관 나인 (124) 3관 처음 본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154) 4관 국가대표(124)/아이시메이지-3(전세) 5관 마이시스터즈키피어 (124) 6관 해운대 (124) / 지.아이.조 (154) 7관 이태원살인사건 (154) 8관 애자 (154) 9관 국가대표 (124) 10관 해운대 (124)</p> <p>•5000원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305 매일 심야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영장 289-5757 •하미 생활장 282-0925 •하미 팝프장 281-5000 •하미 당구장</p> | <p>복합있는 영화관 *www.dhns.co.kr/1544-0070</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드림업 (124) / 하이레인 (184) 2관 마이시스터즈키피어 (124) 3관 해운대 (124) / 원편 마지막 집 (184) 4관 국가대표 (124) 5관 이태원살인사건 (154) 6관 블랙 (전세) 7관 애자 (154)</p> <p>•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도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독자 사무나(오전6시~오후11시)</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 <p>시네마 7점 *www.primuscinema.com/www.jalcinema.co.kr</p> <p>제일 시네마 출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이태원살인사건 (154) 2관 애자 (154) 3관 오편-천사의비밀 (184) 4관 국가대표 (124) 5관 마이시스터즈키피어 (124) 6관 해운대 (124)</p> <p>•무도주차 3시간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2시간 30분 초저가 정형외과 부과</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